

유길준의 노동윤리론과 노동자 정치교육론

정희철 ■ 연세대학교*

이형준 ■ 연세대학교**

최연식 ■ 연세대학교***

〈국문요약〉

유길준(兪吉濬, 1856-1914)은 『서유견문』에서 신지식을 갖춘 세력이 교육을 주도하여 인민의 실력을 양성한다면, 자연스럽게 국가의 독립이 달성될 수 있다는 낙관적 정치교육론을 피력했다. 『서유견문』에서 제시한 경제적 독립, 직업정신, 그리고 차등적 노동관으로 구성된 노동윤리론은 그러한 정치교육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유길준은 일본 망명 중에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 교육을 통해 인민의 실력을 양성할 뿐 아니라 충군(忠君) 정신을 통해 인민을 단결시켜야 독립의 실현이 가능해진다는 정치교육론을 전개했다. 『서유견문』의 노동윤리론에 ‘노동을 통한 충군’이라는 내용을 더한 『노동야학독본』의 노동윤리론은 그러한 정치교육의 방향전환을 반영한 것이다.

유길준이 제시한 노동윤리론은 국가의 생존이라는 절박한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여 헌신적으로 노동하되, 신지식을 갖춘 상류계층의 지도를 따르는 인간상을 만들어 내려는 정치 기획의 출발점이었다. 유길준의 노동윤리론은 실학사상, 서구사상, 천황제 이데올로기 등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사상적 자원을 조선의 생존이라는 상위의 목표에 맞추어 탄생시킨 지적 융합의 산물이다.

*주제어: 유길준, 노동윤리, 정치교육, 『서유견문』, 『노동야학독본』

* 주저자,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과정 (E-mail: kalki9568@naver.com)

** 제2저자,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E-mail: nietzc69@daum.net)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E-mail: yeon0925@yonsei.ac.kr)

I. 문제제기

1908년 7월 13일, 경성일보사에서 유길준(兪吉濬, 1856-1914)의 『노동야학독본(勞動夜學讀本)』이 간행되었다. 『노동야학독본』은 흔히 국어 교과서로 여겨져 왔는데, 이 책은 실제로 『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韓國開化期教科書叢書)』의 ‘국어편(國語篇)’에 포함되어 있다(한국학문헌연구소 1977). 그러나 『노동야학독본』에는 막상 기초적인 어법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고 도덕, 권리, 의무 등의 추상적 개념에 대한 설명이 주로 담겨 있다(이진호 1987, 589-592). 게다가 이 책에는 육체노동자에게 필요한 실무적인 차원의 지식도 거의 담겨 있지 않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점은, 유길준은 이 책에서 노동에 전념해야 할 동기, 노동의 차등, 그리고 노동자가 갖추어야 할 덕성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노동윤리(idea of work ethic)’¹⁾을 제시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바로 이 ‘노동윤리’론에는 비단 노동야학회 고문뿐 아니라 관료, 학자, 그리고 사회활동가 등 다양한 직책을 맡아 활동했던 유길준의 사상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길준의 노동윤리론에 관한 연구 성과는 ‘양절(兩截)체제,’ ‘입헌군주제,’ ‘개화의 등급’ 등의 개념을 다룬 연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빈약한 수준이다(최덕수 2013, 18-19). 그리고 유길준의 노동윤리론에 관한 연구들의 경우에도 유길준의 사상 변화 전반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연구는 드물다. 『노동야학독본』을 다룬 연구들은 대체로 야학 운동의 발흥이라는 역사적 배경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야학독본』이 지니는 시대적 의미를 규명해내려 했다(김종진 2004; 배수찬 2006; 이진호 1987; 이훈상 1992). 『노동야학독본』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로는 조운정(2013)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유길준이 노동자 계급을 정치적 주체이면서 동시에 배제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모순성을 지적했다. 김윤희(2015)의 경우, 유길준이 사용하고 있는 노동 개념이 지닌 위계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윤병희(1998)는 『노동야학독본』에서 제기된 노동자 교육론의 의도를 군주에 대한 충성심 강조로 규정했다. 강재순(2004)의 경우 『노동야학독본』이 지주적 근대화 노선에 적합한 노동자상을 창출하기 위해 저술된 책이라고 보았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노동야학독본』에서 전개된

1) 이 글에서 다룰 ‘노동윤리론’은 ‘노동윤리’와 구분된다. ‘노동윤리’는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노동에 임하면서 지녀야 할 태도나 연계를 지칭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에 비해 ‘노동윤리론’은 ‘노동윤리’의 구체적인 내용뿐 아니라, 그러한 내용이 어떤 정치적·사회적 문제 의식과 목적 속에서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까지 지칭한다. ‘정치교육론’과 ‘정치교육’의 관계 역시도 이와 같다.

노동윤리론이 유길준의 다른 저작들에서 나타나는 논의들과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지 깊이 다루지 않고 있다. 『노동야학독본』 집필 전후에 유길준이 견지한 사상적 맥락이 간과되었고, 그의 노동윤리론이 마치 독립적인 논의인 것처럼 간주된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노동윤리론의 변천 과정에 대한 통시적인 고찰을 시도하지 않았다. 『서유견문』에서 이미 노동윤리론이 산발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상당 부분이 『노동야학독본』에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이 간과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길준의 노동윤리론을 ‘정치교육(political education)’론이라는 정치사상적 맥락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정치교육이란 인민을 정치적 문제와 국가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존재인 ‘정치적 인간’으로 만든다는 의미이다.²⁾ 그가 제시한 노동윤리는 ‘노동’ 그 자체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노동을 사회적·국가적 가치의 습득과 공유 문제에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치교육론의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또한, 이 글은 연구의 범위를 『노동야학독본』과 그것이 집필된 시기로 한정하지 않고 『서유견문』에까지 확장시켜 유길준의 노동윤리론이 형성되는 과정 전체를 검토할 것이다.

이 글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과문폐론(科文弊論)>부터 『서유견문』에 이르기까지의 저작들을 검토하여 유길준이 청년기에 형성한 정치교육론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서유견문』에서 발견되는 노동윤리론의 맥락을 재구성하고, 그것이 청년기의 정치교육론과 어떻게 조응하는지 분석할 것이다. 4장에서는 <평화광복책(平和光復策)>, 한성부민회(漢城府民會)와 흥사단(興士團) 관계 문헌 등을 검토하여 일본 망명 후 귀국한 유길준이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한 정치교육론을 살펴볼 것이다. 5장에서는 『노동야학독본』에서 제기된 노동윤리론의 논리적 구조를 살펴보고, 그것이 계몽운동기의 정치교육론과 어떻게 조응하는지 분석할 것이다.

2)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한 연구로는 Choi(2014) 참조. 이 연구에서는 훌륭한 시민을 만들어내려는 유길준의 기획에 주목하여, 그것이 지니는 모순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시민교육(civic education)’이라는 표현 대신 ‘정치교육’을 사용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시민교육’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존재인 ‘시민(citizen)’을 창조하는 것에 가깝다. 이 글에서 다루려는 유길준의 정치교육론은 후술하겠지만 노동자의 정치적 참여보다는 ‘국가이익과 사적 이익의 합치’를 주된 내용으로 삼는다.

II. 日·美 유학기 정치교육론의 형성

유길준의 정치교육론이 형성되는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실학을 수학하던 시기에 습득했던 그의 문제의식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청년기의 유길준은 약 45년간 박규수(朴珪壽)의 문하에서 수학한 바 있다. 박규수는 젊은 지식인들에게 『해국도지(海國圖志)』와 같은 서적을 소개한 개화파의 사상적 스승이었다(이광린 2003, 351-353). <과문폐론(科文弊論)>은 이 시기 유길준이 실학과 스승들의 영향을 받아 작성한 학문개혁 또는 교육개혁에 관한 최초의 논설이었다. 여기에서 그는 과거시험 준비에 쓰이는 글들의 효용 그 자체를 문제 삼았다.

스스로는 사물의 이치에 나아가고 본성을 다하는 학문이라 말하지만, 나아간 바는 무슨 사물이며 다한 바는 무슨 본성인가? 이미 이용후생(利用厚生)의 도(道)에 어두우니 그 쓰임이 삶을 이롭게 하지 못하고 결과를 풍부하게 하지 못한다. 이로써 능히 국가의 부강을 이루고 인민의 평안함을 이룰 수 있겠는가?(유길준 1971a, 240)

이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그는 과거의 정통학문이었던 성리학이 “국가의 부강”과 “인민의 평안함”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그는 사대부 계급 전반이 과문(科文) 작성 위주의 학문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피지배계급에 대한 교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유길준 1971a, 240). 이와 같은 유길준의 성리학에 대한 평가는 사대부 계급이 경제(經世)의 소임을 저버렸다고 비판한 실학파의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³⁾ 그러나 <과문폐론>에는 강렬한 사회비판의식과 청년기의 미숙함도 공존하고 있다. 이 글을 쓸 당시의 유길준은 현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신학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유길준이 그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해답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바로 1881-1882년의 일본 유학 경험이었다.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의 일원이 된 유길준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운영하던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에서 일본에 의해 번역된 서양 학문을 접했다. 비록 임오군란(壬午軍亂)으로 유학을 중단하고 귀국했지만, 그는 그 경험을 귀국 후 작성한 <언사소(言事疏)>를 통해 새로운 ‘정치교육론’으로 제시했다. 여기서 그는 과거제도를 ‘인민(人民)교육’으로 전환해야 한

3) 실학파의 사족(士族) 비판론에 대해서는 강재언(1981, 98) 참조.

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요컨대 그가 제시한 새로운 교육이란 바로 인민 전체의 지식(智識)을 넓히고 기력(氣力)을 배양하는 것이었다(유길준 1971b, 67). 이는 일찍이 『문명론의 개략』에서 “나라 전체에 퍼진 기풍(氣風)”이 문명의 정도를 좌우한다고 주장한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론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후쿠자와 유키치 2012, 77-79). 마찬가지로 유길준도 “나라가 스스로를 지키고 독립할 수 있는 까닭은 인민이 지식과 기력을 지니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여, 인민의 실력양성이 국가의 독립으로 이어진다는 입장을 견지했다(유길준 1971b, 67-68).

이러한 이론을 구현하기 위해 그가 착수한 실천적 활동이 바로 신문발간 사업이었다. 신문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인식은 그가 1882년 4월 21일자 『지지신보(時事新報)』에 게재한 <신문의 기력(氣力)을 논함>이라는 논설에서 그 단초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논설에서 그는 인민교육을 통해 ‘활발의 기상(氣象),’ ‘분양(奮揚)의 마음,’ 그리고 ‘유지(維持)의 힘’(자국을 유지하려는 힘)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광린 1992, 20-21). 다만 그는 “사람이 깨닫는 데는 선후(先後)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미 활발(活潑)의 기상(氣象)을 갖춘 사족(士族)을 계몽시키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이광린 1992, 21). 그는 이 논설에서 인민교육의 기획이 차등적 속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그는 이 경험을 살려 귀국 후에 당시 한성판윤(漢城判尹)이었던 박영효의 지원을 받아 『한성순보(漢城旬報)』의 간행을 준비했고, 이 과정에서 <한성신문국장장정(漢城新聞局章程)>, <신문창간사(新聞創刊辭)>, <신문해설문(新聞解說文)> 등의 문서를 작성했다. <신문창간사>에서는 인민교육의 권한과 개도(開導)하는 공(功)이 이 사업에 달렸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유길준 1971b, 14). 그는 신문간행의 요점이 인민 전체의 지견(智見)을 확장하여 국가의 문화를 증진시키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유길준 1971b, 6-7). 여기서 말하는 “지견(智見)”이란 “국가의 정사를 시비(是非)하며 인물을 포폄(褒貶)하는 일”(유길준 1971b, 21), 즉 정치적 식견과 판단을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그가 주도한 신문 창간 사업의 목적은 곧 국가이익을 고려할 줄 아는 정치적 인간들을 만들어내려는 것이었고, 이 점에서 유길준의 인민교육론은 곧 ‘정치교육(political education)’론이었다.

다만, 『지지신보』의 논설과 마찬가지로 신문간행 관련 문헌들에서도, 유길준은 교육 대상의 문화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정치교육에 관한 그의 차등적 관점을 드러냈다. 예컨대 <한성신문국장장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한성순보』는 매 호마다 국왕의 열람을 우선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는 등 계몽지로서의 성격보다는 철저한 관보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유길준 1971b, 3-4). 게다가 유길준은

조선이 “문화가 미개(未開)하고 인민의 진취하는 기력(氣力)이 아직 부족해서” 민간에서 여러 종의 신문을 매일 발행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유길준 1971b, 13).

그러나 위와 같은 제한적인 구상조차 한성판윤이었던 박영효가 급작스럽게 좌천되면서 얼마 못 가 중단되었다. 이후 유길준은 1883년에 보빙사(報聘使)의 수원(隨員)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된 기회에, 에드워드 모스(Edward S. Morse)의 후원을 받아 매사추세츠의 덤머 아카데미(Dummer Academy)에서 수학했다. 그곳에서 그는 시민적 덕성의 배양에 초점이 맞추어진 미국식 교육제도에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Choi 2014, 108). 유길준의 미국 유학 역시 갑신정변 발발로 급작스럽게 중단되었지만, 귀국 후 7년여의 유폐 기간 중에 그는 『서유견문』을 집필했다. 이 책에는 그가 일본 유학 시절부터 구상해 온 정치교육론이 잘 드러나 있다. 『서유견문』 <나라의 권리(邦國의 權利)> 편에서 그는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인민들의 지식이 높아지고 나라의 법령이 공평하게 시행되어 사람마다 자기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진 뒤에, 모든 인민의 의기(義氣)를 모아 한 나라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인민이 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해도 분노하지 않는다. 정부의 두세 관리가 아무리 마음과 힘을 쏟아가며 (나라를) 보전할 방법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인민들의 반응이 없으므로, 그 효과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유길준 2004, 120).⁴⁾

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그는 인민들이 권리의 중요성을 제대로 배운 후에야 자신의 이해와 국가의 이해를 합치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이 편의 요지는 보통교육을 실시하여 인민들에게 권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시켜야 국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유길준이 당시의 조선 사회에 적합한 현실적인 정부 형태로 ‘입헌군주제’를 선호한 이유도 입헌군주제가 인민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유리하다는 판단과도 관련되어 있었다. 즉 유길준은 <정부의 종류(政府의 種類)> 편에서는 입헌군주제가 비교적 인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좋다고 보고, 그런 상태에서 비로소 “사람마다 자기 나라를 소중하게 여겨 진취하는 기상과 독립하는 정신으로 정부와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한다”고 역설했다(유길준 2004, 174).

4) 이 글에서 『서유견문』의 인용은 허경진(2004)의 번역본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부 수정을 가했다.

물론 이러한 정치교육론은 차등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도 했다. 유길준은 이미 개화한 자에게 “미개화(未開化)한 자를 가르쳐서 깨닫게 해 줄” 책임과 직분이 있다고 단언했다(유길준 2004, 396). 그는 지식인 계층이 “나라를 교화하는 커다란 책임을 스스로 맡는다”고 언급했듯이, 개화에 대한 신지식을 습득한 집단이 정치교육을 주도해야 한다고 보았다(유길준 2004, 328). 『서유견문』이 지향하는 정치교육 기획의 핵심은 정부와 지식인 계층이 주도해서 인민 대중을 국가를 지키는 존재로 창조하는 것에 있었다(김윤희 2009, 318).

이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길준은 실학 수학과 일본·미국 유학 등의 경험을 거치며, 정치교육론의 기초를 형성했다. 그 핵심은 정부가 인민교육을 실시하여 공적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정치적 인간들을 주조해내는 것이었다. 이는 인민의 실력양성이 국가독립의 수호로 자연스럽게 연속된다는 낙관적 지향성을 지닌 기획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획은 교육의 주체와 대상을 엄격히 구분하고, 양자의 차등성을 전제한 것이었다. 이제부터 살펴볼 『서유견문』에서 제기된 노동윤리론은 바로 이런 사상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III. 『서유견문』의 노동윤리론

『서유견문』에는 노동에 종사해야 할 동기, 노동 간의 관계,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덕성 등 노동윤리와 연관된 주제들이 여러 편에 산재해 있다. 비록 『노동야학독본』처럼 ‘노동(勞動)’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노동야학독본』의 문제의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제들도 적지 않다. 이 장에서는 『서유견문』에서 발견되는 노동윤리론을 경제적 독립, 직업의식, 그리고 차등적 노동관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서유견문』의 노동윤리론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노동의 가치가 경제적 독립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서유견문』에는 자신의 노동으로 생활을 영위하지 않는 인간들이 “가련한 인생”(유길준 2004, 304), “만물의 도둑”(유길준 2004, 304), “좀벌레”(유길준 2004, 442) 등으로 지칭된다. 유길준은 “사람이 생계를 구하는 것이지 생계가 사람을 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인민에게 경제적 주체성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유길준 2004, 314). 그는 노동이 본질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것임을 천명했다. 비록 사적 이해에 휘둘리지 않아야 할 공직자조차도, 가장으로서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노동을 한다는 것이다(유길준 2004, 305-306). 마찬가지로 학문의 전수라는 고명한 일을 하고

있는 교사 역시 일정한 급료를 받아서 “놀고먹는(遊食) 인민”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유길준 2004, 306-307).

이러한 입장은 복지정책에 대한 서술에서 잘 나타난다. <정부의 직분(政府의職分)>편에서 그는 빈민구제 사업이 정부의 의무라는 것을 재확인하면서도 동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계했다. 이런 입장의 근거에는 ‘노동을 통한 독립적 생활의 영위’라는 가치가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고가 있다. 유길준에게 있어 빈민구제 사업은 군주가 만백성의 항산(恒産)을 책임져야 한다는 왕정론에 기초해 있지 않았다. 그가 제시한 진정한 빈민 구제의 길은 “인민들로 하여금 저마다 자주적인 생업을 경영하여 남에게 의탁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유길준 2004, 191). 자신의 노동으로 “불기독립(不羈獨立)하는 신체를 지켜서”(유길준 2004, 190) 타인에게 의존하기를 수치스러워하는 “훌륭한 백성(良民)”(유길준 2004, 191), 이것이 『서유견문』의 노동윤리론이 지향하는 독립적 인간상이었다.

『서유견문』의 노동윤리론을 구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직업의식(professionalism)이다. 유길준은 인민 개개인에게 자신의 노동이 지니는 사회적 가치를 인식시키고자 했다. 일례로 교사의 노동은 선각(先覺)으로서 후각(後覺)을 지도하는 것이기에 국가의 근본을 길러낸다는 점에서 존경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유길준 2004, 306). 이런 방식의 가치부여는 비단 근대적 전문직종 종사자들의 노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인쇄소 직원, 상점 점원, 심지어는 품팔이꾼의 노동에 이르기까지 그 근본적 의도는 사회적 분업에서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었다(유길준 2004, 314).

노동은 단지 사회적 분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이익과 직결된 것으로 묘사되었다.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인민 개개인이 각자의 분야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일례로 공업 노동은 무역에서의 우위에 직결된 것이기에, 공업 종사자들에게는 “이치를 깊이 따지고 재주를 단련하여 지극한 경지에 도달하기로 기약”하라고 격려했다(유길준 2004, 326). 상인층을 위한 덕목을 제시한 <상인의 대도(商賈의 大道)>편에도 이런 의식이 잘 나타난다. 유길준은 “전쟁은 난시(亂時)의 상업이며, 상업은 평시의 전쟁”이라 하여, 상업의 본질을 국가 간 생존경쟁으로 이해했다(유길준 2004, 385). 그는 상인들에게 체계화된 지식과 정밀한 규범을 습득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법의 준수나 회계·환율·세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 등이 상인을 위한 덕목으로 제시되었다(유길준 2004, 387-390). “생계를 구하는 자는 농공상(農工商)을 가릴 것 없이, 자기가 택한 생업에 따라 부지런히 마음과 힘을 다하여야 한다”는 언급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듯, 유길준은 인민 개개인에게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절

대적 헌신을 요구했다(유길준 2004, 315). 『서유견문』에서 노동은 곧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고, 자신의 노동이 지니는 사회적 의의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직업의식’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⁵⁾

『서유견문』의 노동윤리론을 구성하고 있는 마지막 요소는 차등적 노동관이다. “어떠한 일로 이익을 취하든지 그 도리와 행실이正大(正大)한가 아닌가만을 따지는 것이 옳다”고 한 것과 같이, 노동의 평등성을 인정하는 듯한 대목도 분명 존재한다(유길준 2004, 380). 그러나 이런 언급만으로 『서유견문』에서 모든 노동의 지위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유길준은 등짐꾼이나 가마꾼 등의 노동을 “천한 일(賤役)”로 지칭하고, “천한 일을 하는 자들은 본래 하등 인물이라서 교육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지식이 부족하여 그 생계를 구하는 방법이 ‘힘쓰는 일(力役)’밖에 없다”고 했다(유길준 2004, 205). 이는 선천적 권리의 평등과 후천적 지위의 불평등을 동시에 인정하는 논법이다. 마치 <인민의 권리(人民의 權利)>편에서 선천적 인권의 평등과 후천적 지위에 따른 귀천을 동시에 긍정한 것처럼(유길준 2004, 137-138), 노동 역시 설사 원론적으로는 평등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지위만은 철저히 차등적으로 규정됐다.

힘을 쓰는 자는 원래 학문을 닦지 않으므로 그 지식이 습관적으로 일하는 데에만 그칠 뿐이지, 근본을 추구하는 공부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선비는 다른 사람이 경작한 것을 먹고 다른 사람이 짠 옷을 입지만, 마음을 힘쓰는 자다. (중략) 정신적으로 노동하는 자의 노고는 농작과 목축의 바탕이 되고, 힘으로 노동하는 자의 노고는 말초적인 것이다(유길준 2004, 441-442).

윗사람이나 아랫사람 또는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 저마다 할 일을 얻고 남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아, 타고난 재주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을 커다란 취지로 삼는다. 다만 귀하고 천한 구별만은 (있으니), 공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조정의 지위만은 존중한다. 그 밖에는 사농공상을 구별하지 않는다. 학문에 힘쓰며 이론과 기술에 통달하여 마음을 쓰는 자는 군자라 하여 존중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여 힘을 쓰는 자는 소인이라고 한다(유길준 2004, 179).

위의 인용문에 나타나듯이 유길준은 “마음을 쓰는 자(勞心者)와 힘을 쓰는 자(勞力者),” “군자(君子)와 소인(小人)”과 같은 유교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5) 홍이섭(洪以燮)은 일찍이 『서유견문』 전반에 흐르는 정신을 “자본주의 정신”으로 규정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직분정신(職分精神)”이 유길준 사상의 요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홍이섭(1968, 289) 참조.

여 노동의 등급을 나누었다. 상급 노동이란 곧 과학적 기술이나 공무의 집행에 대한 지식을 연마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하급 노동에 종사하는 자들을 지도하는 것이다. 즉, 지식인과 관료의 노동이 여타의 노동에 비해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물론, 상급노동의 구체적인 내용이 경전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전인적 교양에서 물질적이고 실무적인 전문지식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그러나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한 후 양자의 귀천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유길준의 노동관은 직업 평등의 노동관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었다.⁶⁾

이상에서 살펴본 『서유견문』의 노동윤리론은 2장에서 검토한 정치교육론과 조응하는 것이었다. 유길준의 정치교육론은 인민의 실력양성이 국가이익과 자신의 이익을 합치시키는 정치적 인간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자연스레 국가의 독립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이었다. 『서유견문』의 노동윤리론은 경제적 독립을 누리면서 직업의식을 발휘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민을 양성하려는 것이었다.⁷⁾ 그 차등적 구조에 있어서도 정치교육론과 노동윤리론은 일치한다. 유길준은 근대적 신지식을 습득한 개화 지식인·관료 계층이 정치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는 지식인·관료의 노동, 즉 노심자(勞心者)들의 상급노동이 여타의 노동보다 우월하다는 차등적 노동관으로 발현되었다.

IV. 계몽운동기의 정치교육론

유길준은 유폐 기간 중이던 1889년 『서유견문』을 탈고했고, 1895년 4월 25일 후쿠자와 유키치의 후원을 받아 교준사(交詢社)에서 출간했다. 1894년부터 시작된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근대적 학제가 도입되던 시기에 유길준은 『서유견문』을 출간함으로써, 노동윤리와 정치교육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개혁 프로그램에 반영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1896년 2월,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인해 개혁을 이끌던 김홍집 내각이 붕괴하자, 유길준 자신도 역도로 몰려 일본 망명길에 오

6) 『서유견문』에는 분명 직업 평등론을 역설하는 문구들이 등장하지만, 이것만으로 유길준이 직업 평등의 노동관을 견지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는 후쿠자와 유키치로부터 무비관적으로 따온 자유주의적 사고가 유길준의 사상 체계 내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유영익 1992, 137).

7) 이 시기의 유길준은 일신(一身)의 독립이 일국(一國)의 독립으로 이어진다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입장과 유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용화(2004, 235-237) 참조.

르게 되었다. 망명 중 그는 내각을 전복하는 모의에 참여하기도 했으나 무위로 돌아갔고, 1907년에야 귀국할 수 있었다.

귀국 후 유길준이 전개한 정치교육론은 1907년 10월 제출한 <평화광복책(平和光復策)>에 잘 드러나 있다. 유길준은 귀국 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 활동 대신 민간에서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 글은 그러한 발표의 연장선상에 있다.⁸⁾ 여기에서도 그는 “자유평민(自由平民)”으로 남아 교육사업에 전념할 것을 천명했다(유길준 1971b, 280). 그는 문교무천(文驕武賤)의 풍속과 상업 천시 풍조 등으로 인해 망국이 가까워졌다고 진단하고, 부국강병을 이루는 것만이 광복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인민 전체가 단결하여 “오직 부강의 도(道)와 광복의 일을 생각해야” 함을 강변했다(유길준 1971b, 277-278).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유길준은 이전의 정치교육론과 구별되는 새로운 내용을 제시한다. 즉 그는 인민을 단결시키기 위해서는 ‘충군(忠君) 정신’ 주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유길준이 제기한 ‘충군(忠君)’은 다분히 일본의 천황제 이데올로기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⁹⁾ 이와 관련하여 유길준은 “일본 망명 기간 동안 가슴에 품고 뼈에 새기고 온 것은 다름 아닌 일본 국민이 천황에 충성하는 도(道)”라고 밝힌 바 있었다(유길준 1971b, 281). 이는 조선 인민에게 충성심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었다. 유길준은 조선의 인민들이 비록 충성심 자체는 강한 편이나 그것을 발휘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고 보았다(유길준 1971b, 281). 그는 의병투쟁과 같은 항일활동을 중지하고 오로지 부국강병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학교육(小學教育)에 대한 의견(意見)>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나타난다. 1908년 6월에 집필한 이 논설에서 유길준은 소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¹⁰⁾ 이 글에서 그는 “선량(善良)한 국민(國民)”의 양성을 위해 “국어(國語)를 쓰는 일(國語로以는事),” “국체(國體)에 협력하는 일(國體에協하는事),” “보급(普及)을 도모하는 일(普及을圖하는事)”에 신경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유길준 1971c, 257). 이 중에서 <평화광복책>과 연속되는 계몽운동기의 정치교육론이 지닌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선 “국체에 협력하는 일”에 주목해야 한다. “국체에 협력하는 일”은 “국가의 기초를 공고하게 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8) 귀국 직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는 이규수(2017, 25) 참조.

9) 유길준의 후기 사상을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의한 영향에 기초해 설명한 연구로는 쓰키야시 다쓰히코(2014) 참조.

10) 이 논설은 1908년 6월 14, 16일자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와 동년 6월 10일자 『황성신문(皇城新聞)』에 게재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충군주의(忠君主義)를 우선시”하는 것이다(유길준 1971c, 258). 이 때문에 유길준은 소학교에서 공화주의 사상을 담은 교과서를 배포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유길준 1971c, 258). 그의 소학교육론은 충군 정신 배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유길준의 흥사단(興士團)과 한성부민회(漢城府民會) 활동은 그의 계몽운동기 정치교육론을 현장에서 구현하려 했던 노력의 결과였다. 1907년 귀국 이후 유길준은 경제·사회·교육에 걸친 다양한 사회단체에 참여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흥사단과 한성부민회는 인민 일반에 대한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정치교육론과 직결되어 있다. 일본에서 귀국한 직후 유길준은 고종으로부터 받은 하사금으로 흥사단을 조직하고 <흥사단취지서(興士團趣旨書)>를 집필하기도 했다(유동준 1987, 277-281). 또한, 1908년 전후에 상설화된 자치기구로 자리 잡아 가던 한성부민회에서 회장직을 맡기도 했다.¹¹⁾

두 단체의 활동에 반영된 유길준의 정치교육론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그 설립목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흥사단취지서>에서 유길준은 전국민적인 “지식의 계발과 도덕의 수양”이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했다(유길준 1971c, 363-364). 그는 ‘사(士)’라는 개념을 직능적 의미가 아닌 일종의 능력(지식과 도덕)으로 재해석했다(유길준 1971c, 364). 그는 보통교육으로 국민 모두가 사(士)가 되는 사회를 이루자고 주장했다(유길준 1971c, 367). 한성부민회 역시 유사한 목적을 표방했다. <한성부민회창립취지서(漢城府民會靑立趣旨書)>에서는 “인민들에게 자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고 각자가 저야 할 의무를 설명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천명했다(유길준 1971b, 313). 또 <한성부민회창립이유서(漢城府民會靑立理由書)>에서는 인민들이 임원선출과 경비의 공동부담·관리 등 국가의 초급행정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회의 존재의의를 찾았다(유길준 1971b, 314). 한성부민회의 설립목적은 인민에게 정치적 사무에 대한 지식을 부여하고 경험을 축적시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단체의 설립목적에 드러나듯이, 인민의 실력을 양성하여 정치적 인간을 만들자는 『서유견문』 단계의 정치교육론 구상은 이 시기에도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유길준이 한성부민회와 흥사단에서 벌인 활동은, <평화광복책>과 <소학교육에 대한 의견>에서 전개된 계몽운동기의 정치교육론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흥사단은 <흥사단규칙(興士團規則)>에서 보통 교과서적 편찬, 교사양성, 지방 학교 신설 등을 핵심적 사무로 규정했다(유길준 1971c, 371). 또한, <흥사단취

11) 한성부민회의 형성과정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용창(2004), 김형목(1997) 참조.

무세칙(興土團處務細則)>에 따르면 서무부(庶務部)와 회계부(會計部) 외의 하부조직은 모두 소학교육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것들이다.¹²⁾ 한성부민회 역시도 거의 모든 역량을 소학교육의 확산과 발전에 투자했다(김형목 1997, 62). <한성부민회 처무규정(漢城府民會處務規程)>에서는 한 과(課) 전체가 학교업무를 위주로 담당하도록 했다(유길준 1971b, 294). 이외에도 <한성부민회조례(漢城府民會條例)> 중 하나를 “사립학교(私立學校)에 관(關)하는 규정(規程)”으로 하고 “각 방(坊)은 내부에 반드시 1개의 사립학교를 설립할 국민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기도 했다.(유길준 1971b, 296). 요컨대, 양 단체의 실질적인 활동 내용은 결국 소학교육의 확산과 발전이었다. 앞서 <소학교육에 대한 의견>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시기의 유길준은 분명 소학교육을 충군정신 배양의 핵심적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한성부민회와 흥사단 활동은 궁극적으로 충군의식의 고취를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흥사단과 한성부민회 활동에는 유길준의 계몽운동기 정치교육론이 지니고 있는 차등적 성격 역시 잘 드러난다. <흥사단규칙>에 따르면 모든 단원은 입단금(入團金) 2환(圓)을 납부하고, 매년 연금(捐金) 1환(圓) 20전(錢)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유길준 1971c, 377). 단원 자격에 있어 일종의 경제적 제약조건을 마련해 둔 것이다. 실제로 흥사단의 역점 사업을 주도한 세력은 게이오기주쿠 등으로 일본 유학을 다녀온 인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윤병희 1998, 147). 한성부민회도 마찬가지였다. <한성부민회규약>에 따르면, 주거민(住居民)의 규약 상 자격은 “(1) 독립생활을 유지하는 가족의 20세 이상 남자, (2) 1년 이상 부(府)의 주거민 되는 자, (3) 국세 1원(圓) 이상을 납부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유길준 1971b, 287). 특히 “1원(圓) 이상의 국세”는 당시 관보(官報)에 따르면 10칸 이상의 가옥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액수였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윤병희 1998, 196-197). 흥사단과 한성부민회는 모두 소학교육의 보급이라는 다분히 평등 지향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었으나, 동시에 그러한 사업의 추진은 상류계층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식에 기초해 있었다.

이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길준은 오랜 일본 망명을 거치고 귀국한 후 기존의 정치교육론에 수정을 가했다. 그는 여전히 인민의 실력을 양성하여 정치적 인간들을 만들어낸다는 정치교육론을 견지하고 있었으나, 그것만으로 부강(富強)과 광복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았다. 계몽운동기 정치교육론의 요체는 인민의 실력양성에 더하여 충군정신을 진작해야 부강과 광복을 달성할 수 있다

12) 흥사단이 펼친 소학교육 운동의 구체적 내용과 성과는 윤병희(1998, 150-163) 참조.

는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정치교육론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과 재산을 지닌 상류계층만을 주도세력으로 인정하는 차등적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노동야학독본』의 노동윤리론은 바로 이런 사상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V. 『노동야학독본』의 노동윤리론

『노동야학독본』은 총 50과(課)로 이루어져 있다. 기존의 연구 중에는 전체 과를 배치 순서와 내용에 따라 몇 부분으로 나누어 도식화한 경우들이 많다(김윤희 2015, 194; 배수찬 2006, 604; 이훈상 1992, 756). 그러나 이 책에는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부분이 많으며 반드시 노동윤리로 분류할 수 있는 내용만 다루는 것도 아니다. 때문에 『노동야학독본』의 노동윤리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전체에서 노동윤리에 해당하는 요소를 추출하여 재구성해낼 필요가 있다. 특히, 3장에서 살펴본 『서유견문』의 노동윤리론이 어떤 방식으로 계승·변용되고 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야학독본』에서도 노동의 가치는 경제적 독립과 직결되어 있다. 『서유견문』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유길준은 노동하지 않고 타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인간을 “나라의 짐(蠹)이며 사회의 도적”으로 간주했다(유길준 2012, 49).¹³⁾ 이는 3장에서 살펴보았듯, 관(官)의 시혜에 의존하지 않는 인간상을 만들어내려는 것이었다. 유길준은 “내 일은 내가 해야 되니 남이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여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주체성을 지닐 것을 요구했다(유길준 2012, 49). 독립에 대한 지향은 제 9과 <내 몸>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천만 사람이 각기 서로 내가 있으니 나의 몸은 나의 형상이요 나의 목숨이라.
어미 같은 가까운 친족이라도 그 먹는 밥이 아들의 주림을 구원치 못하고 형 같은 친척이라도 그 입는 옷이 아우의 추위를 막지 못하니 나의 몸은 내가 호위하며 내가 기르는 것이다. 나의 몸은 내가 가지고 남에게 의지하지 말며 남에게 굶히지 말 것이다(유길준 2012, 29).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유길준은 부모 형제와도 동일시될 수 없는 욕망을 가진 독립적 개인을 상상해냈다. 이러한 경제적 독립은 비단 사적 영역에 국한되

13) 이 글에서 『노동야학독본』의 인용은 조운정(2013)의 번역본을 기본으로 하되, 필자가 필요한 경우 일부 수정을 가했다.

지 않고 국가의 영역에까지 확장된다. 유길준은 “내 생활을 내가 하여야 내 나라 일을 내가 한다”고 하여, 경제적 독립이 노동자를 정치적 인간으로 만들어준다고 주장했다(유길준 2012, 38-39).

직업의식 역시 『서유견문』에서 제시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유길준은 육체노동자들의 노동이 지니는 사회적·국가적 가치를 자각시키는 방식으로 노동에 대한 자부심을 끌어내려고 했다. 그는 노동자들에게 부유층들부터 임금에 이르기까지 상류계층들은 모두 노동자들의 “땀이나 빨아먹는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유길준 2012, 67). 노동자들은 이를 통해 사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국가·세계의 지형도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획득하게 된다”(조운정 2013, 420).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노동자들에게 직업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이 사회의 유지와 국가의 부강에 직결된 이상,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게을리 놀지 않고 부지런히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유길준 2012, 24). <경쟁연설(競爭演說)>편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 각국이 서로 내가 나으니 네가 못하니 하고 서로 다투는 세상에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으면 필경은 남에게 질 것입니다. (중략) 그 중에도 노동하는 동포님들 힘이드는지 행실이드는지 조금도 남의 나라 사람에게 지지 말아야 합니다”(유길준 2012, 104). 물론 『노동야학독본』은 그 주된 독자가 육체노동자이기 때문에 직업의식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노동야학독본』에서는 『서유견문』에서 제시된 고도의 전문정보보다는 단순명료한 덕목들이 주로 강조된다. 감독하는 자가 없어도 “내가 맡은 역사(役事)는 나 할 도리대로”(유길준 2012, 47) 할 것, “품삯은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맡은 일은 약속대로”(유길준 2012, 58) 할 것 등이 여러 과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차등적 노동관은 『서유견문』의 그것보다 좀 더 정교한 방식으로 등장한다. 『노동야학독본』에서도 유길준은 일견 모든 종류의 노동이 평등하다는 듯한 언급을 했다. 그는 “낮은 일이라고 싫어 말라. 벌이하기에는 귀천이 없다”고 했다(유길준 2012, 52). 그러나 이는 원리적인 평등과 지위 상의 불평등을 동시에 인정하는 논법일 뿐이다. 그는 모든 종류의 노동이 노심자와 노력자(勞力者)로 양분될 수 있다는 관념을 다시 소환했다(유길준 2012, 24). 노심자의 노동은 “한 사람이 천백 사람을 부리는” 것이고 노력자의 노동은 “천백 사람이 한 사람에게 부림 당하는” 것이기에, 양자 사이에 귀천(貴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유길준 2012, 56-57). 『노동야학독본』에서는 노동 간의 차등이 인간사회의 자연스러운 법칙으로 승화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이 모두 귀하며 모두 부하면 사람의 일은 그날 끊어질 것이다. 대개 노동하는 일은 빈천한 자의 일이다. (중략) 노동하는 동포들은 어찌하여 아랫사람 되었는데가. 재주 없고 천량 없어 사느라고 되었으니 이미 아랫사람이 되었거든 아랫사람 되는 도리를 지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의 법이 허락지 않아 질서를 문란케 하는 죄인 된다. 질서를 지키어 위아래가 조화한 후에야 국권회복이 될 것이다(유길준 2012, 97).

요컨대, 노동의 차등은 일종의 자연스러운 사회적 분업이며 이것이 없이는 사회와 국가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세상에 앓은 사람이 적고 선 사람이 많아야 그 나라가 부강하고 그 사회가 문명”한다고 하여 노동의 차등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치를 지님을 강조했다(유길준 2012, 57).

지금까지 살펴본 요소들은 『서유견문』에서부터 연속되거나 약간 변용된 것이다. 『노동야학독본』의 노동윤리론이 지닌 고유성을 파악하기 위해선 노동과 ‘충군(忠君)’의 연결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리가 가능한 이유는 유길준이 군주와 인민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이 이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이다. <고황제의 자손되는 국민>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앞드려 생각하니 우리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께서 덕이 하늘 같으신 까닭에 복이 또한 하늘같으셔서 나라를 여신지 오백년 이래로 이천만 인민에 내외 자손 아니 되는 자가 없구나. 누구든지 그 성(姓)이 전주(全州) 이씨(李氏) 아니라도 몇 대 이하의 외가나 여덟 고조(高祖)를 따져보면 전주 이씨 한 분 없는 자는 없으니, 그러하니 말하기 황송하오나 우리 이천만 동포는 다 태조고황제의 혈속자손이라 이를 것이다(유길준 2012, 70).

『노동야학독본』의 단계에서 군주와 백성의 관계는 ‘확장’된 친족관계 정도가 아니라 친족관계 그 자체로 규정된다. 이것을 『서유견문』에서부터 중요시된 전통적인 유교 윤리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윤병희 1998, 66), 군주를 혈연공동체의 정점에 서 있는 존재로 이해하는 군주관은 비유적인 가족국가론과 질적으로 다르다(이형준·최연식 2018, 156).¹⁴⁾ 그리고 바로 이러한 군주관으로부터 노동을 위한 동기가 도출된다. 자신과 친족의 독립을 위해 노동하는 자라면 당연히 자신

14) 바로 이 지점에서 계몽운동기의 유길준이 일본의 천황제 이데올로기로부터 받은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유길준이 망명하고 있던 당시의 일본에서는 이미 황실을 인민의 증가로 개념화하는 가족국가적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헌법, 『교육칙어(教育勅語)』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천명되고 있었기 때문이다(이형준·최연식 2018, 158).

의 증가어른인 임금을 위해서도 노동해야만 한다. 때문에 유길준은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려면 “잠시도 놀지 말고 부국강병 일을 삼아 우리 목숨을 바치자”고 노동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유길준 2012, 31). 또한, 노동은 충군의 ‘적절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유길준은 진정한 충성은 “나라의 위태한 때에 의병이라 가칭하고 도적의 일을 행함”과 다르다고 단정했다(유길준 2012, 92). 그는 의병 항쟁과 같은 방식으로 발현되는 충성을 부정하고, 헌신적인 노동만이 충군의 방법이라 역설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야학독본』의 노동윤리론은 4장에서 검토한 계몽운동기의 정치교육론과 조응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도 상류계층의 주도하에 인민의 실력을 양성해서 정치적 인간들을 만들어낸다는 구상은 유지되고 있었다. 때문에 『노동야학독본』에서는 경제적 독립과 직업의식에 대한 강조가 반복되었고, 차등적 노동관이 이전보다 자세하게 전개되었다. 계몽운동기의 정치교육론은 이전 시기와 달리 충군정신의 배양을 통한 단결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었다. 『노동야학독본』에서는 그런 점을 반영하여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친족관계로 치환해 헌신적 노동의 필요성을 도출해냈다.

VI. 결 론

유길준은 문명의 발전이 물질적 차원의 변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경제적·제도적 차원의 변혁이 가능하기 위해선 그에 적합한 인민이 먼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간파했다. 이 때문에 그는 일생에 걸쳐 인민 전체에 대한 정치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청년기의 유길준은 개화 지식인·관료 세력이 주도하는 교육으로 인민의 실력을 양성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국가의 독립으로 이어진다는 낙관적 입장을 견지했다. 『서유견문』의 노동윤리론은 바로 그러한 정치교육론의 구체적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경제적 독립과 직업정신에 대한 강조는, 개인과 국가의 실력양성을 위해 개개인이 지녀야 할 삶의 태도로 제시된 것이었다. 또한, 그는 차등적 노동관을 통해 정치교육의 주체인 개화 지식인·관료 세력의 역할을 확립했다. 이렇게 본다면, 노동윤리는 유길준이 정치교육을 통해 조선의 인민들에게 주입하고자 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덕성으로서 제기된 것이었다.

유길준은 일련의 정치적 좌절을 거친 후 일본의 천황제 이데올로기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다. 귀국 이후 그는 상류계층이 주도하는 교육으로 인민의 실력을 양성하고, 거기에 더해 충군정신으로 인민을 단결시켜야 독립이 성취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그는 충군이 자칫 잘못 이해될 경우, 오히려 국가의 부강에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발현될 수 있음을 경계했다. 『노동야학독본』의 노동윤리론은 그러한 정치교육론을 반영한 것이었다. 여기서 유길준은 경제적 독립과 직업정신을 다시 강조해서 인민의 실력양성이 중대한 일임을 재확인했다. 또 차등적 노동관을 정교화해서 상류계층이 정치교육을 주도해야 할 당위성을 공고화했다. 한발 더 나아가 그는 임금을 친족과 동일시하는 논리를 활용해, ‘충군’의 구체적인 내용을 헌신적 노동으로 한정했다. 그는 노동윤리를 통해 정치교육의 내용과 실현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길준의 노동윤리론은 정치교육의 일환으로서 구상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시각으로 노동윤리를 바라볼 때 그것이 지니는 정치적 함의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노동야학독본』 단계에 이르러 완성된 유길준의 노동윤리론에는 경제적 독립, 직업의식, 차등적 노동관, 그리고 충군이라는 이질적인 가치들이 섞여 있다. 그러나 노동윤리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가 정치교육론의 관점에서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면 비로소 그 일관성이 드러난다. 경제적 독립과 직업의식에 대한 강조는 국가 독립의 수호를 위해 인민 전반의 실력을 기르자는 구상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차등적 노동관은 신지식을 습득한 세력이 정치교육을 이끌어야 국가의 독립을 수호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었다. 충군 역시 국가의 부강을 위한 노동을 장려하고, 의병항쟁과 같은 방식으로 표출되는 충성을 봉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국가의 생존이라는 절박한 문제가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자각하고 일치단결하여 노동하되, 신지식을 갖춘 상류계층의 지도를 따르는 존재, 이것이 유길준의 노동윤리론이 만들어내려는 인간상이었다.

또한, 노동윤리론의 변천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유길준의 노동윤리론이 지닌 독자성을 확인할 수 있다. 유길준은 『서유견문』에서 이미 노동윤리론의 대략적인 윤곽을 잡았고, 『노동야학독본』에서도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충군의식을 보완해 수정했다. 그는 자신의 노동윤리론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조선 실학, 유학 시절에 학습한 서구사상, 그리고 천황제 이데올로기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나, 어느 하나를 맹목적으로 답습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의 노동윤리론은 각각의 요소로부터 필요한 논리를 적절히 추출해 혼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유길준의 노동윤리론의 성격을 단편적으로 ‘유교적,’ ‘자유주의적,’ 또는 ‘전체주의적’이라고 규정해버리기는 어렵다. 유길준의 노동윤리론은 다양한 사상적 자원을 조선의 생존이라는 상위의 목표에 맞추어 탄생시킨 지적 융합의 산물이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강재순. 2004. “한말 유길준의 실업활동과 노동관.” 『역사와 경계』 50, 1-32.
- 강재언 저·정창렬 옮김. 1981. 『한국의 개화사상』. 서울: 비봉출판사.
- 김윤희. 2009. “근대 국가구성원으로서의 인민 개념 형성(1876~1894): 민(民)=적자(赤子)와 『서유견문(西遊見聞)』의 인민.” 『역사문제연구』 21, 295-331.
- _____. 2015. “근대 노동 개념의 위계성: 『서유견문』에서 『노동야학독본』까지.” 『사림(성대사림)』 52, 175-206.
- 김종진. 2004. “개화기 이후 독본 교과서에 나타난 노동 담론의 변모양상: 『노동야학독본』과 『중등교육조선어급한문독본』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42, 57-78.
- 김형목. 1997. “자강운동기 한성부민회의 의무교육 시행과 성격.” 『중앙사론』 9, 61-106.
- 배수찬. 2006. “『노동야학독본』의 시대적 성격에 대한 연구: 지식 체계와 교재의 구성 방식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19, 599-626.
- 쓰키야시 다쓰히코 저·최덕수 옮김. 2014. 『조선의 개화사상과 내셔널리즘』. 파주: 열린책들.
- 유길준. 유길준전서편찬위원회 편. 1971a. 『유길준 전서, 5, 시문편』. 서울: 일조각.
- _____. 유길준전서편찬위원회 편. 1971b. 『유길준 전서, 4, 정치 경제편』. 서울: 일조각.
- _____. 유길준전서편찬위원회 편. 1971c. 『유길준 전서, 2, 문법 교육편』. 서울: 일조각.
- 유길준 저·허경진 옮김. 2004. 『서유견문』. 서울: 서해문집.
- 유길준 저·조윤정 옮김. 2012. 『노동야학독본』. 광명: 경진.
- 유동준. 1987. 『유길준전』. 서울: 일조각.
- 유영익. 1990. “『서유견문』론.” 『한국사시민강좌』 7. 서울: 일조각, 127-156.
- 유영익. 1992. “『서유견문』과 유길준의 보수적 점진개혁론.” 『한국근현대사론』. 서울: 일조각, 117-148.
- 윤병희. 1998. 『유길준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 이광린. 1992. 『유길준: 닫힌 사회에 던진 충격』. 서울: 동아일보사.
- _____. 2003. “개화기 지식인의 실학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연세실학

- 강좌IV』. 서울: 혜안, 349-365.
- 이규수. 2017. “일본 언론의 유길준 인식.” 『사람(성대사람)』 60, 1-35.
- 이용창. 2004. “‘한성부민회’의 조직과정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2, 25-60.
- 이진호. 1987.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 연구.” 회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편. 『열мна 이용호박사 회갑기념논문집』. 서울: 한샘, 567-598.
- 이형준, 최연식. 2018. “유길준의 자연과 국가: 주자학적 관점의 굴절.”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7(2), 137-165.
- 이훈상. 1992. “구한말 노동야학의 성행과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 두계이병도박사구순기념한국사학논총간행위원회 편. 『한국사학논총: 이병도박사구순기념한국사학논총』. 서울: 국학자료원, 743-778.
- 정용화. 2004. 『문명의 정치사상: 유길준과 근대 한국』. 서울: 문학과지성사.
- 조윤정. 2013. “노동자 교육을 둘러싼 지식의 절합과 계몽의 정치성 -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 (勞動夜學讀本) 고찰 -.” 『인문논총』 69, 407-445.
- 최덕수. 2013. “서거 100주년 유길준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학보』 53, 7 - 34.
- 한국학문헌연구소. 1977. 『한국 개화기 교과서 총서, 2, 국어편, 2』. 서울: 아세아문화사.
- 홍이섭. 1968. 『한국사의 방법』. 서울: 탐구당.
- 후쿠자와 유키치 저·정명환 옮김. 2012.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론』. 서울: 기파랑.

영문 자료

- Choi, Yeonsik. 2014. “Yu Kil-chun’s Moral Idea of Civilization and Project to Make All People Gentlemen.” *Asian Philosophy* 24(2), 103-120.

Abstract

Yu Kil-chun's Idea of Work Ethic and Political Education Project for Workers

Chung, Hee Chul ■ Yonsei University

Lee, Hyung June ■ Yonsei University

Choi, Yeon Sik ■ Yonsei University

Yu Kil-chun(1856-1914) proposed optimistic theory of political education that the independence of a nation will naturally be achieved if a class with new knowledge cultivates people's capability by leading an education in *Söyu kyönmun* (Observations on Western Civilization). The work ethic that suggested in *Söyu kyönmun*, which is composed of economic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differential view of labor, was the starting point of political education.

However, Yu Kil-chun influenced by the ideology of Japanese emperor system during exile in Japan, and proposed a theory of political education that the independence of nation can be achieved not only by cultivating the people's power through an education, but also by uniting the people through a spirit of loyalty to the king. The idea of work ethic in *Nodong yahak tokbon* (Textbook for Workers' Night School), which added 'loyalty to the king by labor' to the idea of work ethic in *Söyu kyönmun*, reflected that conversion of political education's direction.

The idea of work ethic which is suggested by Yu Kil-chun was a starting point of political project to make an image of individual who recognizes the urgent problem of nation's survival as his own matter and obeys to the upper class who owns new knowledge. Yu Kil-chun's idea of work ethic is a product of intellectual fusion which was created by fitting various ideological sources like *Shilhak*, Western thought, and the ideology of Japanese emperor system under the higher goal of Joseon's survival.

Key Words: Yu Kil-chun, work ethic, political education, Söyu kyönmun (Observations on Western Civilization), Nodong yahak tokbon (Textbook for Workers' Night School)